

하나님의 기적

죽음의 위협에서 기적적으로 탈출한 콩고민주공화국 킨샤사 만민교회 데지레 로보 성도와 그를 도운 노아 목사의 간증.

‘선’ 시리즈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넘쳤고 온 집에 충성하였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나아갈 수 있었다.

5월 은사 집회 치료 사례

비대면으로 진행된 5월 은사 집회에서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 기도를 통해 불같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렸다.

“통증이 사라지고 질병을 치료받았어요”

시공을 초월한 권능의 역사로 신경병, 대상포진, 오심증, 역류성 식도염 등 갖가지 질병을 치료받은 국내외 성도들의 간증.

만민뉴스

제970호 2022년 6월 12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죽음의 위협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데지레 로보 성도 (콩고민주공화국 킨샤사 만민교회)

하나님께서 저를 죽음으로부터 어떻게 보호하셨는지에 대해 간증하고자 합니다.

저는 육군 대령으로서 부니아 이투리 작전에 투입된 지 4년이 되었습니다. 그 지역에는 8개의 무장 반란군이 각자의 영역을 차지한 채 정부군의 접근을 막고 있습니다. 두 개의 부족이 항상 대립했으며 화해는 거듭 실패했지요. 매일 50명 이상이 살해당했는데, 반란군은 정부군뿐만 아니라 아이와 노인을 포함한 일반 시민도 살해하였습니다.

사실 저희는 1년 동안 반란군과의 대화를 시도하기 위해 12번 매복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사람들이 살해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고 오히려 제 목숨이 붙어 있는 것이 이상했지요. 생명을 위협받는 이 상황이



▲ 킨샤사 만민교회 세바스찬 장로(왼쪽)와 데지레 로보 성도 부부

큰 압박으로 다가왔지만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는 목숨을 바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반란군 측에서 저희를 환영할 의사를 보이며 무기 없이 몇 명만 들어오라고 하였습니다.

드디어 2월 16일, 저는 평소 100명 이상의 군인들과 함께 움직였으나 이날은 그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 부니아 지역 두 부족의 대표자들과 함께 비무장 상태로 반란군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를 잡기 위한 그들의 수였습니니다. 그들은 저희를 바로 결박한 후 그들이 섬기는 우상

과 죽은 자의 영혼을 숭배하는 신당의 영매에게 저희를 죽일지 말지를 물었습니다. 신당의 영매는 저희를 죽이라고 하였지요.

그들은 즉시 저희를 땅에 앞드리게 하고 칼을 갈았습니다. 그리고 시체 태울 불을 피우기 시작하였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신 코데도가 있다. 너희 신이 너희를 구하는지 보게 너희도 너희 신에게 구하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간 부족의 대표자 중 한 명을 죽이려고 했지요.

그때 저도 모르게 일어나 “이재록 박사님의 하나님! 이재록 박사님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웃기 시작했습니다. “너의 신이 박사냐? 동양의 신을 섬기냐?”라고 놀렸지요.

저는 울며 “이재록 박사님의 하나님!”이라고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대장으로 보이는 반란군에게 갑자기 본부에서 전화가 왔고, 그는 통화 후 오늘 죽이지 않고 다음 날 죽이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저희는 숲의 지하 감옥에 감금되었습니다. 항상 영매의 뜻에 따라 포로를 죽여 왔기에 그 뜻을 거스르고 저희를 살려 둔 자체

가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탈출하여 살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결의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에 보내 줄 것을 지속해서 부탁하였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에 가도록 허락된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서자마자 죽음에서 살려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저의 기도를 들으신 성도님들이 간증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저는 성결의 복음과 이재록 박사님에 대해 전했습니다. 반란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저는 은혜를 받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에 의해 계속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담임 목사님이 지하 감옥이 있는 지역에서 정부군의 캠프까지 가는 탈출로를 알고 있는 유일한 분이었던 사실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무사히 탈출하기 위해 7일 금식을 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금식 6일째 되는 밤에 간수들을 따돌리고 탈출에 성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차를 준비해서 기다리던 목사님을 만나 자정부부터 새벽 5시까지 달려 4월 12일 정부군 주둔지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 탈출 성공 후



노아 목사



▲ 데지레 로보 성도와 노아 목사(오른쪽)

우리 교회에 반란군 포로, 데지레 대령이 처음 왔을 때 저는 그에게 성도 앞에서 말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 많은 성도가 은혜를 받았고 더 듣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또 와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데지레 대령은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했고 많은 성도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는 중보 기도를 부탁했고, 저와 성도들은 그와 다른 포로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와 매우 가까워졌습니다.

그의 부족과 저희 부족은 벨기에 식민 시절부터 앙숙

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와 대화하거나 도와주 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지요. 그런데 말씀에 은혜를 받고 그들이 처한 상황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그들을 도와야 할지 생각하였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해야 하는 일이었지요.

마침내 그들은 여러 번의 시도 끝에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었고, 저는 그 지역에 익숙했기에 그들을 반란군의 기지가 있는 숲에서 지름길로 인도해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저희를 보호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들을 돕고자 저를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모세의 선(善)_2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민수기 12:3, 7)

모세는 애굽 왕자로 있으면서 고난받는 자신의 동족으로 인해 늘 번민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의분을 참지 못해 그만 애굽 사람을 죽이고 말았지요.

이 일이 탄로 나자 결국 모세는 도피 생활을 해야 했는데, 그때 그의 나이는 40세였습니다. 애굽에서 도망쳐 나온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목동 생활을 했지요.

당시 목동은 애굽 사람들에게 가장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모세는 40년의 연단을 거치면서 과거 왕자로서 당당했던 자신감과 자기 의를 철저히 깨뜨리고 낮아졌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으로 다져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출애굽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과연 모세는 어떠한 선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나아갔을까요?

1.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한 온유함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말씀한 대로 모세는 당시 모든 사람보다 가장 온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함’은 부드럽고 온화한 마음에 덕(德)을 겸한 마음입니다. 즉 솜털같이 부드럽고 포근하면서도 덕이 있어서 말과 행동이 반듯하고, 때로는 위엄 있게 다스릴 줄 아는 마음이지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할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 교양에 맞지 않는 사람도 능히 품을 수 있으며, 매사에 모든 것을 악으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항상 상대를 감싸주고 그 입장에서 이해해 주며,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를 섬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불편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자신이 불편함을 주지도 않으며 아무리 믿음이 연약하고 악을 발하는 사람이라 해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변화될 것을 기다리지요. 상대가 더 잘할 수 있는 길을 알아서 그 길로 이끌어 주고 도와줍니다.

이처럼 온유한 마음을 이룬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는 장정만 해도 60만 명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

애굽 시키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40년의 여정에서 어려운 상황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하심으로 나타내 주신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보면서도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모세의 믿음과 순종으로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통과했지만, 사흘 광야 길을 가는 동안에 마실 물이 없자 불평하며 모세를 원망했지요. 그렇게 큰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믿음 없는 백성을 용납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써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이적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을 마신 백성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먹을 양식이 없다는 이유로 모세를 원망합니다. “...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와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출 16:3)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모세를 택해 출애굽 시켜 주셨으니 감사해야 하거늘 오히려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일지라도 모세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다시 하나님께 기도해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배불리 먹입니다.

그런데 만나가 내리기 시작했던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이란 곳으로 옮겨 장막을 쳤을 때 그곳에도 마실 물이 없자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며 모세에게 돌질할 기세로 달려듭니다. 이때도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해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지팡이로 반석을 쳐 물이 나오게 하지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는가?’ 의심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 앞에 크게 죄를 범하여 진멸 당할 상황에 부닥치게 됩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숭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히 진노하시며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켜 주의 백성에게 그 화를 내리지 마시기를 간곡히 구하지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켜 화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막상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이 행하는 것을 보니 참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죄를 범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출 32:31-32) 기도하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를 범했지만, 그들이 멸망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기에 모세는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 앞에 그들의 구원을 놓고 간절히 구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원수를 위해 생명도 줄 수 있는 최고의 선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히 품고 가려 했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2. 온 집에 충성함

‘충성’이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뿐만 아니라 직무 이상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온 집에 충성’이란 교회 뿐만 아니라 가정, 학교, 일터, 사업터 등 자기가 속한 모든 분야에서 충성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온 집에 충성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과 정성, 시간과 물질까지도 아끼지 않고 기꺼이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에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했습니다. ‘사환’이란 ‘잔심부름을 위해 고용된 일꾼’을 의미하는 말로서, 모세가 얼마나 자신을 낮추어 맡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는지를 알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모세가 원했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따라 택함을 받고 부름을 받은 것이었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모세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사명을 포기하지

<p>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p> <p>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김진홍 인쇄인 이호영</p> <p>홈페이지 www.manminnews.com</p> <p>만민중앙성결교회 대표전화 02) 818-7000</p>	<p>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p> <p>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p> <p>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30 PM 수요일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p> <p>다니엘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단, 토요일은 제외)</p>
---	--

이재록 목사의 대표 저서

십자가의 도
 :: 62개 언어로 출간된 전 세계인의 필독서

천국(상·하)
 :: 천국의 아름다움과 생활, 각 처소와 상급 등 그 비밀

지옥
 :: 생생한 컬러 화보로 전하는 지옥의 참상

믿음의 분량
 :: 믿음의 본질과 성장 비결에 대한 결정판

교보문고, 영풍문고, 북스리브로, 예스24, 인터파크 등에서 판매

않았고, 오직 믿음으로 난관을 뚫고 나갔습니다.

백성들에 대해서도 그저 출애굽 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만 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지 않았지요. 아비와 같은 심정으로 늘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이 되게 하고자 고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믿음이 부족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서 모세는 늘 그들로 인해 애통하며 기도하였지요. 애굽에서 백성을 끌어낸 날부터 삶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한시도 편히 지낸 적이 없었습니다. 백성을 위해 흘린 눈물과 애통의 기도는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마음 중심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많은 교통을 이루셨고, 큰 권능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친히 율법을 받아 내렸고, 친구와 이야

기하듯 하나님과 교통을 이뤘지요(민 12:8).

그러면 모세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했으니 당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 1세대 중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 단 2명에 불과했고, 정작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간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였습니다. 출애굽 2세대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믿음으로 백성을 잘 인도한 결과이지만,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열매가 적은 것을 민망히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셨고, 많은 것을 보장해 주셨는데 온전히 많은 열매를 내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고 민망한 마음이었지요. 바로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도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고백하는 무익한 종의 마음보다 더 겸비한 마음을 지녔던 것입니다.

혹여 여러분은 '내가 맡은 사명이 무겁고 너무 힘들다. 사명을 놓고 쉬고 싶다.'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신지요? 그렇다면 백성을 출애굽 시키면서부터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까지 백성으로 인해 한시도 마음 편히 지내지 못했던 모세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 집에 충성하고도 열매가 적은 것을 민망히 여기는 겸비한 모세의 마음을 떠올리며 더욱 뜨겁게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의 선을 본받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한 온유한 사람이 되어 가정, 학교, 직장, 사업터 등 있는 곳에서 온 집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풍성하게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상포진을 치료받았습니다”



정인숙 권사
(55세, 2대대 12교구)

지난 5월 초부터 갑자기 오른쪽 무릎이 아팠습니다. 처음에는 관절염인가 싶었는데 물집 같은 것이 생기더니 점점 무릎 위쪽으로 퍼져 허벅지까지 올라갔습니다. 피부 속이 찌릿찌릿한 통증이 오면 “아!” 소리가 저절로 나올 정도였지요.

그동안 욕기 강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번개함과 간사함을 발견하여 모든 것이 남의 탓이 아닌 내 탓임을 회개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은사 집회 때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가족에 대해 서운했던 것이 떠오르며 모든 것이 내 탓임이 더 깊이 깨우쳐졌지요. 저는 철저히 회개한 뒤 간절히 기도를 받았습니

다. 그 뒤 통증이 사라지고 붉게 올라온 물집도 가라앉았지요. 지금은 깨끗합니다.

“비염으로 인한 귀 통증을 치료받았습니다”



조영순 집사
(37세, 중국 2교구)

저는 8년 전부터 귀가 아프고 자주 먹먹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청력에는 문제가 없으나 비염으로 인해 귀가 불편한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최근에 증세가 더 심해져서 많이 불편했습니다.

은사 집회 때 치료받기 위해 환자 접수를 하고, 현장에 가서 작정 다니엘 철야를 하면서 지난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육신의 생각 가운데 서운해하거나 서러워했던 어두운 모습들이 떠올라 회개하였고 모든 것에 긍정적으로, 선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였지요.

그 뒤 은사 집회에서 기도를 받고 나서는 귀의 통증이 사라져 귀가 편안하고, 먹먹함도 없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을 치료받았습니다”



안민근 집사
(46세, 1대대 2교구)

저는 몇 달 전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쓰린 증상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받으니 역류성 식도염이었습니다.

은사 집회 때 치료받기 위해 먼저 환자 접수를 하고 작정 다니엘 철야에 참여해 간절히 기도하며 사모함으로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은사 집회에 참석해 예배를 드리던 중 갑자기 기침이 나오더니 가슴이 뻥 뚫린 느낌이 들었고, 이후 아무런 통증이 없으며 편안합니다.

“늘어난 왼쪽 대퇴부 인대를 치료받았습니다”

김옥란 집사 (63세, 중국 1교구)

지난 5월 13일, 일하다가 저의 부주의로 왼쪽 다리를 삐걱했는데 이후 엉덩이 부분에 통증이 심했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통증으로 인해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진받으니 왼쪽 대퇴부 인대가 늘어났다고 하였습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화장실에 앉아 있기조차 힘들었습니다. 한 주간 일을 쉬어야 했지요. 저는 걷기도 힘든 상황이었지만 현장에 가서 작정 다니엘 철야를 참석하며 최선을 다해 기도하였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고 기도하면서 돌아보니 구역장 사명을 감당하면서 어떤 성도님에게는 조금한 마음을 가졌고, 어떤 성도님에게는 속상한 마음과 때로는 서운한 마음을 가졌던 것들이 떠오르면서 이 모든 것이 악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지요.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날마다 회개 기도를 하며 5월 22일 이날도 ‘만드시 치료받으리라.’는 믿음으로 작정 다니엘 철야에 참석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도하시는 만민기도원 이복님 원장님께서 제 어깨에 손을 얹으실 때 온몸에 뜨거움이 임하면서 감동함 속에 불같은 기도를 올릴 수 있었지요.

그리고 기도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극심했던 통증이 사라지고 다리에 힘이 주어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뻐서 빠른 걸음으로 신나게 걸어 보았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웃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허리 통증, 척추측만증이 치료되고 왼쪽 오금의 물혹이 사라졌어요”

지난 2월에 왼쪽 무릎 뒤 오금에 물이 차서 병원에서 주사기로 세 번 물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자두만 한 물혹이 그 부위에 생긴 것입니다.

저는 3월 은사 집회에서 이와 더불어 척추측만증을 치료받고자 믿음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매일 아침, 회개와 감사기도를 올리고 늘 감사의 조건을 찾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자 하였습니다.

10여 년 전, 저는 김장을 앉아서 하다가 일어섰는데 허리에서 ‘뚝’ 소리가 난 뒤 허리가 매우 아팠습니다. 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해 보니 요추디스크 4, 5번 연골 두 개가 압박되면서 과열되어서 그 부분이 까맣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검사를 다시 했는데 까맣던 연골 부위가 정상적으로 채워져 있었지요. 의사 선생님은 “자연적으로 채워질 수 있는데 신기하다.”고 하셨습니다.



윤종희 집사 (74세, 3대대 19교구)

그러나 허리 통증은 여전히 있어서 앉았다가 일어서려면 허리에 부담이 안 가도록 아주 조심해 일어서야 했습니다. 서 있을 때도 허리를 똑바로 펴지 못하고 삐딱하게 서 있어야 했지요.

3월 25일 은사 집회 때 간절히 기도를 받았는데 그다음 날, 시장에 다녀오는 길에 갑자기 허리가 쪽 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 허리가 왜 쪽 올라가지?’ 하는 순간 은사 집회 때 치료받았다는 확신이 들었지요. 지금은 전혀 통증이 없으며 허리를 쪽 펴고 반듯하게 걷습니다.

그 뒤 3월 은사 집회 때 치료받지 못했던 왼쪽 오금의 물혹을 5월 은사 집회 때 치료받고자 기도로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5월 22일 주일 대예배 때 환자 기도를 받으려고 왼쪽 오금에 손을 대 보니 혹이 만져지지 않았지요. 하나님께서 이미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자목으로 인한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최미자 권사 (49세, 2대대 12교구)

2020년 11월, 어깨와 상체 부위의 통증으로 인해 너무 힘들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식사하면 체한 느낌이 있었고, 근육이 늘 긴장된 상태로 무기력했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받으니 일자목으로 인해 신경이 눌려 어깨 및 상체 부위, 심지어 소화 기능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치료를 위해 물리 치료와 주사를 계속 맞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은사 집회 때마다 믿음으로 치료받고자 했지만 응답받지를 못했습니다. 원인을 궁구해 보니 제 나름대로 작성하여 기도한다고 했으나 중심 기도를 하지 못하고,

아프다는 핑계로 충만하게 손뼉 치며 찬양하지 못한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만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양을 드리지 못한 것이었지요.

5월 은사 집회를 준비하면서 깨우친 것들을 회개하고 작정 다니엘 철야를 현장에서 참석해 간절히 기도하며 충만히 찬양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어깨와 상체 부위의 통증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5월 27일 은사 집회 때 기도를 받은 뒤에는 통증이 전혀 없고, 근육의 긴장도 사라져 무기력감도 없으며, 몸이 가볍고 활기칩니다.

“오른쪽 눈의 따끔거림이 사라지고 시력도 좋아졌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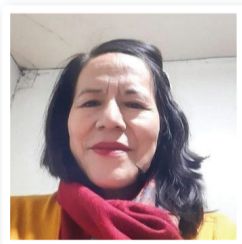
제이시 그루에소 성도 (32세, 콜롬비아)

저는 어떤 것을 볼 때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고 상대의 얼굴이나 글자를 잘 볼 수가 없었습니다. 또 오른쪽 눈이 따끔거리고 불편했지요.

그런데 5월 27일 은사 집회에 참석하여 기도 받은 후에는 오른쪽 눈이 따끔거리고

불편한 증상이 사라졌고, 시력이 매우 좋아졌습니다.

“발바닥이 쏘는 듯 아프고 피로운 신경병을 치료받았어요”



양헬리카 캄보스 뿌리스 성도(61세, 페루)

저는 발바닥이 쏘는 듯 아프고, 서 있을 때 피로가 심한 신경병으로 인해 고통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치료받고자 5월 은사 집회에 참석하였는데, 설교는 마치 저를 위한 말씀 같았고 환자 기도를 받을 때

는 성령의 불이 임해 아픈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어깨와 등의 타들어 가는 듯한 통증이 사라졌어요”



플라우디스 아브레구 성도(30세, 칠레)

저는 등과 어깨 통증으로 힘들었습니다. 특히 등 통증은 마치 뼈가 타들어 가는 듯한 고통이 따랐지요.

그런데 5월 27일 은사 집회에서 기도를 받을 때 어깨에 무거운 짐이 사라지는 듯하면서 통증이 없었고, 타들어

가는 듯한 등의 통증도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아침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김해만민성결교회 경남 김해시 삼정동 43-15 메디피아 4층 ☎010-6218-070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마산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광천서로 57 광명빌딩 7층 ☎010-8741-2073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상동 비파로 135-1 2층 ☎010-6507-753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엄사면 향환리 374 ☎042)841-0091, 010-7195-1099
- 서산만민성결교회 충남 서산시 무학로 1895 ☎010-6306-9798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만리공원길 7-1 3층(교동)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성결교회 전남 순천시 장평길 13 2층 ☎010-6803-7266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52-26(청운로 129) ☎041)546-1537, 010-2672-0244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4849-1479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3-7077, 010-8291-7173
- 춘천만민성결교회 강원도 춘천시 옥산포길 17-7 ☎010-2090-771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용산동 1210 ☎043)845-0617, 010-2447-9217
- 강릉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경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원정로 162 ☎010-5611-725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2290-1856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5611-725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7736-9333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1-0542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4820-1700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7773-0357
- 영종도지성전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351 832동 402호 ☎010-5611-725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4710-9649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아셀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2201-054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5611-7254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4710-9649